



동서중국브리프

2024년 라이칭더 당선 이후
대만의 대내외 관계 변화와 전망

2024년 라이칭더 당선 이후 대만의 대내외 관계 변화와 전망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소

1. 대만 총통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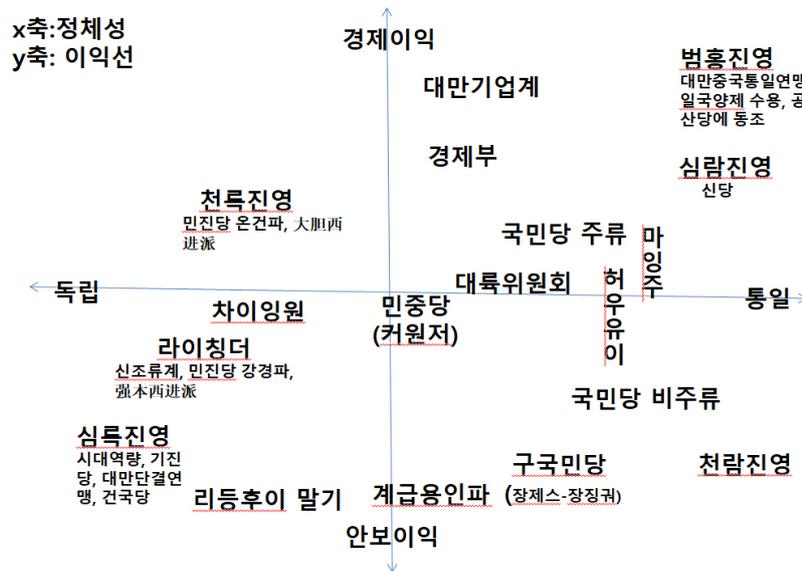
○ 총통선거

- 대만은 1987년戒嚴令 해제 이후, 민주화, 본토화, 대만독립화(臺獨化)의 길을 걸어옴.
- 중화민국 4단계론: 중화민국의 대륙집권기(中華民國在大陸, 1912~1949), 중화민국의 대만 피난기(中華民國到臺灣, 1949~1987, 장제스·장징궈 시기), 중화민국의 대만집권기(中華民國在臺灣, 1988~2000, 리덩후이 시기), 대만으로서의 중화민국(中華民國就是臺灣, 2000년 이후)으로 정체성 변화
- 즉, 현재는 중화민국은 대만이고, 대만은 중화민국으로의 정체성 형성. 현재 '대만'은 지명이나 국명의 역할을 함. 대만과 중화민국 병기. 중화민국의 대만화, 국민당의 대만화가 이루어짐.
- 대만 독립 강령을 채택한 민주진보당 창당(1986년)후 국민당과 양당 체제 구축. 1996년 대만 최초 총통 직선제 실시 이후, 양당이 교대로 집권
- 이번 2024년 총통 선거는 본성인 출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었고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해 대만독립을 주장했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전통적인 민진당 지지층 표만으로 당선(40.05%).
- 라이칭더는 자신을 '실용적인 대만독립 추진자(務實的臺獨工作者)'로 자칭할 정도로 대만 독립 세력의 적통으로 민진당 핵심 파벌인 신조류계의 적자.
- 라이칭더는 중국 당국에 의해 트러블메이커, 분리주의자로 오래전에 규정된 상태로 친미·친일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됨.

2. 라이칭더 정부의 대내 관계 전망

- 국내 민생 문제 엄중
 -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업·임금·부동산·전기·수도·원자력 등 민생 경제의 기반 정비 필요,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저출산 문제 심각 등. 민생문제를 국정 우선순위에 둘 전망.
- 격심한 정치적 대립과 이념·지역·세대·정체성 갈등
 - 대만의 극단정치는 국가 정체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통일과 독립의 정체성 x축과,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의 이익선 y축으로 삼아 정략에 따른 분포를 보면, 대만은 한국보다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더 심함.

〈그림〉 대만 정치의 분열 양상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五南圖書, 2004(초판4쇄), 177, 182, 190쪽, 필자 재구성

- 대만 민주화 이후 대만인의 정체성(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문제가 양안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으로 떠오름. 대만인과 중국인, 대만민족과 중국민족으로 분기하기 시작. 현재 주류 민의는 전자에 가까움.
- 따라서 국민당도 노골적인 친중노선을 채택할 수 없어 한국 언론에서처럼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친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다만 통일/독립, 외성/내성, 친중/친미, 중화민국/대만, 중국인/대만인, 중화민족/대만민족, 북람남록(北藍南綠) 등의 이분법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완전한 갈등 해소는 어려워 향후 대만 정치계는 여야 대립과 갈등을 노출할 것.
- 고질적인 북람남록 현상
 - 대만은 북쪽은 남색진영(국민당), 남쪽은 녹색진영(민진당)으로 표가 갈리는 지역분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할 것.
- 불안정한 여소야대 정국
 - 2024년 입법위원 선거 결과 총 113석 중 국민당(52석), 민진당(51석), 민중당(지역구 전패, 비례 8석) 무소속(2석)으로 3당 모두 과반수 의석(57석) 확보 실패.
- 민진당 독주 불가능.
 - 2022년 직할시장 및 현·시장 선거에서 민진당의 대참패. 직할시장, 현·시장 당선:국민당(14), 민진당(5), 민중당(1), 무당적(2), 2022년 직할시, 현·시 지방의회 의원: 국민당(367), 민진당(277), 민중당(14). 민진당은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타정당과 연합을 필요로 함.
- 2000년 정국 구도 재현
 - 2000년 천수이볜 당선 상황과 유사성. 당시와 다른 점은 국민당이 국회의 절대다수였음. 또한 당시 왕진핑 입법원장은 천수이볜에 비교적 관대했던 반면 2024년 여소야대 입법원 구성은 정치적 갈등·대립이 불가피함. 특히 국민당 비례 1번 한귀위가 차기 입법원장으로 예상됨.
- 외교·국방·양안 문제에서 여야의 타협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민중당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대만 국내정치 안정/불안정이 결정될 것.
 - 8석의 민중당이 국민당과 민진당 간 거중조정할 가능성 높음. 향후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 가능성 증가

- 국민당 정치인들의 도전
 - 국민당 비례 1번 외성인 2세인 한귀위가 입법원장이 될 예정이고 반대당으로서의 전투성을 발휘할 것. 현 타이중 직할시 시장 루슈옌 (盧秀燕), 타이베이 시장 장완안(蔣萬安)이 2028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 높음(三立新聞台, 2024. 1.17). 특히 루슈옌은 향후 국민당 주석직에 도전할 전망이며,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2028년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라이칭더 정부의 양안관계 전망

- 라이칭더는 시진핑과 완전한 대척 관계에 있음.
 - 민진당은 '92공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1980년 대만 GDP는 중국의 45% 수준, 현재 대만 GDP는 중국의 1/25 수준. 2000년대 이후 대만은 양안관계에서 피동·수동의 위치에 놓임. 양안관계의 주도권이 중국 당국으로 기울어짐.
- 군사적 긴장
 - 중국 당국은 라이칭더 정부에 대해 과거 천수이볜 시기와는 달리 별도의 탐색 단계 없이 곧바로 길들이기 차원의 문무공혁(文武恐嚇, 말로 으르고 군사적 협박)으로 바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이 일상화 될 것임.
- 정랭경열(政冷經熱)에서 정랭경랭(政冷經冷)로
 - 중국은 대만에 대해 경제를 통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 중국은 양안 관세 감면 조치 환원, 무역장벽 조사 착수로 대만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정책을 중단할 것임. 단, ECFA는 유지할 전망. 최근 10년 동안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4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36%까지 하락함. 대만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전망.
-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사용
 - 대만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것, 심리전·여론전·법률전을 포함한 영역을 이용,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대만의 의지를 꺾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함.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은 '전략적 인내'에 가까움.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베이징이 그어 놓은 마지노선을 넘을 경우로 미국: 베이징과 단교하고 대만과 수교하거나,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군사방위조약을 맺을 경우임. 즉 중·미 수교의 3원칙인 대만과의 단교, 철군, 폐약(방위조약)이 깨지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완전히 파기할 경우 타협의 여지없이 대만을 침공할 것. 또한 대만이 반분열국가법 규정(대만독립선포, 외세 개입 등)을 넘어서면 전략적인내심을 단번에 포기하고 곧바로 대만을 침공할 것.

- 단기적으로 라이칭더의 양안 타협 모색 가능성도 존재
 - 5월 20일 취임 전 라이칭더는 베이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유화책을 제시할 가능성 높음. 가령 천수이볜 총통 취임식 당시 베이징을 안심시킬 목적에서 4불일몰유(四不一沒有, 임기 내 독립선포, 국호변경, 양국론 입헌, 통·독 문제를 국민투표 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국통 강령·국통회 폐지 없을 것)를 발표함.
 - 미 당국자들(Bonnie Glaser, Jessica Weiss, Thomas Christensen)이 중국에 대한 유화책으로 '대만독립' 당 강령 '동결(frozen)'을 건의(Foreign Affairs, 2024년 11월 30일, 공동기고)하며 중국에 핑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
 - 따라서 라이칭더 정권은 '대만독립 당강' 동결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 '92 공식(consensus)'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92 공식' 인정은 대만독립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민진당의 존립근거를 허물 것.

- 양안 교류 필요성은 모두 인정
 - 중국, 대만 모두 양안의 교류협력과 융합발전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유함. 공산당은 민진당이 미국 쪽으로 경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강은 양면책 구사를 지속할 것임.

- 계산된 양안 교류협력
 -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정책의 기초는 선경후정, 선이후난, 선급후완, 순서점진, 이상핍정, 이민핍관, 화독점통(先經後政, 先易後難, 先急後緩, 循序漸進, 以商逼政, 以民逼官, 化獨漸統)의 방식으로 진행.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함. 무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정치에서 흑자

로 만회할 수 있다는 무역적자/정치흑자를 항상 계산에 두고 있음.

- 방독(防獨)에서 촉통(促統)으로
 -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의 대만 정책이 방독(防獨, 독립 반대)에 초점. 통일은 중국의 번영과 함께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 시간은 베이징의 편에 있다는 인식이 강했음. 하지만 시진핑 시기의 대만 정책은 2019년 「고대만동포서」 40주년 기념 담화가 전환점이 됨. 일국양제의 대만방안 탐색 촉구. 국민당 불신. 시진핑의 '92공식'은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공동으로 국가통일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함의를 덧붙임. 「고대만동포서」 40주년 기념 담화를 전환점으로 촉통(促統: 통일 촉구) 단계로 진입. 향후 중국은 라이칭더 정부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대만 포용(惠臺) 조치 31항과 유사한 형태의 촉통융합 정책을 제출할 것으로 예견됨.

4. 라이칭더 정부의 대외관계 전망

- 단교 문제
 - 대만은 국제적 생존 공간 확장 외교전을 펼칠 것임.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9개국(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함, 현 대만과의 수교국은 13개국에 불과함. 민진당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될 것임. 중국의 국제적 역량 강화로 미국의 대만지지도에도 한계가 있음.
- 대만 문제는 중·미의 종속변수로 작동
 - 미국의 대만관계법과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은 완전한 대척상태에 있음. 더구나 미국의 2024 국방수권법'의 대만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 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주목할 것임. 트럼프의 당선과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할 것
- 대미 관계
 - 미국의 대만 정책은 양안의 현상 유지(status quo)임. 현상은 동태적인 개념임, 대만해협의 현상'은 미국이 정의하는 현상임(2004년 제임스 켈리 청문회). 미국이 정의하는 양안 현상은 분이부독, 화이불통(分而不獨, 和而不統)으로 나뉘어 있지만 독립은 안 되고, 평화롭지

만 통일은 안 되는 즉 불통(不統), 불독(不獨), 불무(不武)인 삼불정책임.

- 미국의 입장에서선 대만이 중국과 통일하거나, 대만이 독립해버리면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소멸. 대만독립으로 촉발될 대만해협 전쟁으로의 연루도 기피.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양안관계는 현상 유지임.
- 이전의 차이잉원 노선은 양안의 현상 유지며,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노선 계승을 이미 천명. 대만은 미국의 입장 수용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 반도체 관련 동맹을 유지하고, 가치 공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

○ 대일 관계

- 대만 문제의 일본 요인 커짐. 아베 총리 장례식에 대만의 조문 대표로 라이칭더가 일본을 방문한 바 있고 민진당의 강한 친일 정서와 대만-일본 국회 친목 네트워크로 대일 관계는 강화될 것임.
-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확대가 심화되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것. 이는 역사 문제, 영토분쟁과 더불어 미국과는 다른 종류의 갈등으로 중국내 강한 민족주의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

○ 한반도 정세와 한국·대만 관계

- 라이칭더의 당선은 양안 정세와 중·미 관계, 세계 기술·경제 공급망 문제·무역·군사적 지정학에 영향을 줄 것임. 대만의 미래와 양안 관계, 중·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학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등의 문구가 정부 성명에 삽입되기 시작하며 점차 대만해협 문제와 우리의 안보가 긴밀히 엮이고 있는 추세임.
- 대만해협과 남북한 문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있는데, 대만 문제가 한·중 관계, 남·북한 관계,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 갈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이며,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의 3대 역사 임무(현대화 건설, 조국 통일, 세계평화와 발전)로 타협의 공간이 전무. 한국정부의 대만 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함.